

사설

독일 통일 7주년의 교훈

지난 10월 3일 독일은 통틀 7주년을 기념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의 동·서독 분단 45년만에 통일을 이룬 지도 7년의 세월이 흘렀다. 7년전 인구 6천1백20만명에 국민총생산(GNP) 1조3천억달러(88년기준)인 서독과 인구 1천6백60만명에 국민총생산 2천70억달러(88년기준)의 동독이 합쳐진 이후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그간 정치, 교육, 사회, 군사 등의 분야에서 제도적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통일과 기본을 갖추었다. 당시 동독지역학회의 원로교수들이 서독지역학회의 4명씩 불려왔으나 지금은 75%에, 주민인원 가처분소득도 당시 서독의 41.3%수준에서 오늘날 65.3%로 오르는 등 실제 생활상의 지역간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다만 동·서독지역민간의 심리적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고 있다. 동독지역의 경우 과거에 비해 엄청난 물가의 상승(집의 경우 360% 상승) 및 실업의 증가(지난 8월현재 18.3%)에 대한 불안은 '2등국민'이라는 열등감과 함께 경제체제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서독지역의 경우 압도 예상과는 달리 통일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국민적 부담의 증가로 고민하고 있다. 실제 서독인 및 신원주인에 대한 서독지역 주민들과 야당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통일전 1990년 5월 서독은 1천1백50억마르크의 통일기금을 조성하였으나 통일이 구제화되었을 때까 그해 9월 1조 내지 2조마르크의 비용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독일 내부무부는 90년통일비용을 금년 3월까지 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공공부문에서만도 약 1조마르크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외에 민간부문에서의 투자까지 합치면 2조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베를린정변통일후 동·서독지역간의 진정한 내부적 통합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길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통일독일이 유망한 중장기로서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과 동독지역 젊은 세대들의 빠른 적응력은 동·서독지역간의 경제격 차이를 해소하고 또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토록 해줄 것이다.

교육의 경우 남·북 통일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간 독일통일의 교훈을 거울삼아 남북통일의 준비는 해오고 있다. 그 중 제도적 차이에의 조치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서나 학계 등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나, 통일할 경우 당장 필요로 할 비용면에서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준비가 소홀한 것 같다. 이만한 엄청난 통일비용을 대비 남·북 통일 자체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것 같기도 하다. 몇 년전 독일의 슈미트 총통은 남·북 통일시 예상되는 경제격 부담과 관련하여 '독일통일의 경우 서독인 약 3.5명이 동독인 1명을 부양'함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남한인 약 2명이 북한인 1명을 부양'하게 되어 독일에 비해 통일에 따른 경제격 부담감이 훨씬 가중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경제현실이 과거 서독에 비해 나은 사정도 아닐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이러한 경제격 부담감속에서 남·북 통일자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한편으로는 동포들을 자극하여 통일지지를 고무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켜 오히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꺾을 수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루고 진정한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려야 할 것이다. 이미 분단된 지 50여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분단의 현상이 서서히 많은 이념의 세대들이 세상을 떠났다. 전후의 많은 세대, 특히 오늘날의 신세대들은 남북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지도 않고 그 해의 우리가 있기까지의 어려움도 겪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북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고 궁극적인 남북간의 동등성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동등성회복이 미흡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만일 북한정권이 무너진다고하여도 우리 민족의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어떤다는 의견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통일비용면에서 적극적으 나서야 할 것이다. '통일자체를 실행하는데 돈이 든 것은 없다'고 믿었고 또 앞으로 돈더만 쓰면 그것은 통일비용이 아니라 동등국민권리가 40년간 봉양된 과오의 쓰레기를 청산하는 '과거정산'일 뿐이라는 통독당파의 어느 서독관료의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극심한 식량난이나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그 경제규모에 비해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북한정정을 볼 때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앞으로의 통일을 구제화해나가기에 필요한 재원회복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출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누시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웅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하이텔, 나무누리(OEDAE))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학부제 폐지하라

무턱대고 놀기만 했던 1학기는 지나고 어느정도 어수선했던 2학기가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내 머리속은 아직도 복잡하기만 하다. 여태 막연한 생각에만 갇혀있던 학부제 폐지론이다. 몇몇전 학부제가 도입되었을 때까에서는 '왜냐고' 따져서 '왜냐고' 여러 장문을 일장간장 동안 집어 보여 자기자고 싶은 과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고, 그로인해 자기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내 속에서는 물리·화학보다는 막상 그렇지도 않다. 학부제가 적합하지 않은 학과였던 때까엔 입학식날부터 선배님들은 일자로 우리를 물리·화학반으로 나누었다.

총인 90명 중 나를 포함한 70명 이상이 화학반에 들어왔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물리반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화학반인 우리들은 화학과 선배님들과 어울렸고, 그후 열었던 자체대정, 대동제 등 행사때마다 우리들은 물리·화학부가 아닌 화학부로 참여했다.

그와는 사뭇 다른 시스템에 화학반은 화학과로, 물리반은 물리과로 바뀌어 갔다. 그래서인지 나를 포함한 화학반 친구들은 누가 "학교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서슴없이 "외대 화학과에 다녀요." 라고 대답하게 된다. 이미 화학과 선배님,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쌓아온 화학반 친구들 거의 대부분은 물리학과 선배님들을 모른다.

그런데 화학반 새내기 2학년대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물리과로 바뀐다면 과연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다시말해, 화학과 정원은 55명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70명이 넘는 화학반 새내기 중 약 20명은 원하는 과를 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 선택을 성적이 좌우한다는 점이다. 막말로 정말 학력이 하고 싶어도 학점이 나쁘면 할 수 없다는 예기다.

우리는 더 이상 고등학생도 아니고 성적으로 인하여 학문의 선택권을 포기하거나 배양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서는 학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비싼 등록금과 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역동적인 일인가?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는 학부제를 폐지하고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최준호 (물리·화학부 1)

학내 영화제의 문제점

8월 저녁 7시, 우리 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다하여 상영불가판정을 받은 왕가위의 '부노노 아이레스'를 보러 대강당으로 갔다.

대강당이 꼭 들어갈 정도의 많은 인원을 보며 왕가위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영화상영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영여자막이었던 것이다. 나를 비롯해 그것을 알고 들어간 이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 영여자막 조차도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영화제는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의의를 갖겠지만, 공식적인 행사라는 점을 의식한다면 보는 관객의 입장을 고려한 서비스를 확실히 해야한다.

어떻게 구한 데탕인데 불려온 보고 말려온 마리는 안일함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을 하는 고 하니,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한국이 자막 처리까지도 하지 않는 현실이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영화제라는 것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영화제를 준비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구한 작품을 다른 이들과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러하다면 한글 자막이나 적어도 영여자막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왕가위의 영화가 끝나고 나온, 주제작의 '한글자막 처리' 다시 상영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짜증이 났다.

할 수도 있었는데 안했으면서 시간들여 돈들여 다시 올라는 것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이다. 피지 못할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 영화제 자체를 알차게 꾸리고 싶었다면 영화제는 자막 처리후로 연기되었어야 할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료 영화상영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학교측 관계자는 선문화원 규정은 없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학생의 재량에 맡긴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작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웃기는 것은 이미 비디오를 출시되어 있는 것도 그 제법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정도는 영화제를 위한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응답의 대가점도 양보한다 지

더라도, 그 그것을 홍보 계시물 같은 것에는 언급하지 않고 대중 넘어갈려고 하는 것인가 말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들이 돈을 받았다면 스스로의 실패에는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의 문제제기는 이번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이제까지 그러했으므로 앞으로도 그러할, 영화제라는 행사가 안일한 준비로 학생들의 시간과 돈을 속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는 보람있는 행사의 하나가 되었으면 하나 비평에서이다.

최봉실 (동양·인도어 2)

학생회 건부의 혁신점

얼마 전 학보 지면 안내에서 '공부 못 하는 것도 서러운 일'이란 건부까지 못하도'라는 문구를 보았다. 이는 학생회 건부 자격이 평점 2.5이상으로 강화된 것을 비꼬는 말이었다.

과거 성적 조항이 학생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근래의 연대태세나 한층된 출범식 후 이러한 구실로 학생회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생겼다.

그러나 관련기사를 쓴 학보 기자와 말처럼 학생들의 투표를 그들을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부 잘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건부자격 요건의 결정적인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 일'이란 건부까지 못한다는 말이 일반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평점 2.5라는 기준이 일반 학생이

보통의 노력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점수는 아니라고 본다. 정성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시험을 보면, 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이다.

결론적으로 학생회 건부의 자격요건 설정은 학교측이 인위적이고 타율적으로 결정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이 반성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학생회가 활동을 위촉하기라는 이런 조항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정공방으로 맞서 꼬투리를 잡지 않고 명분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열매만이 학교 측에 담겨질 수 있고 학생들의 지지도에 이끌어 낼 수 있다.

김태국 (상경계열 1)



언어학과 정보공학의 만남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여기서 "정보화"란 정보의 알아나 정보다 전달 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치 정보화 사업은 컴퓨터 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간의 관심영역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한다. 그런 것을 일컬어라고 하듯이 우리 주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새로운 이들을 들을 수 있다. 모든 변화가 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집안 크게 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의 안방으로 만들었다. 인터넷을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우리는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닐 수 있다. 인터넷에는 통신망은 더 이상 신기한 도구가 아니다. ATM초고속 통신망은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서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회의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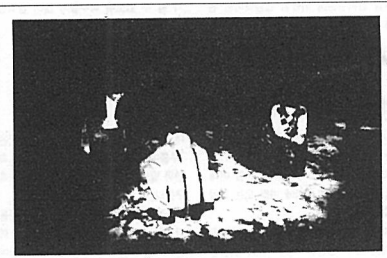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컴퓨터와 정보통신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을 별나라에서 알아나고 있는 것처럼 실감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컴퓨터나 정보통신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도구이며 기구이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는 오히려 기술에 문화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훌륭한 작가라면 뛰어난 작품을 위한 사람이지만 좋은 글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컴퓨터의 활용범위를 늘리는 것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외국어를 번역할 수 있게 되고,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제간 협력이 절대적이어야 한다. 컴퓨터에 의한 번역이나 음성인식은 언어학과 컴퓨터공학의 공동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이 바로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행히 우리 외대에는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과 같은 정보관련 공학과와 24개 지점 언어학과가 있다. 이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 외대는 정보화 부흥에서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번 학기 우리외대에 정보통신학부의 일원으로 '멀티미디어교육센터'가 개설되었다. 여기에는 음성인식, 기계번역, 통신언어처리, 음성인식 등의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해온 교수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이제 정보화의 뜻을 세운데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론통과 출신의 지적적 거리를 하나의 공간적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 원격·상속교육을 실시할 날도 멀지 않다.

1987년에 우리 대학은 지역학의 중심대학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대학교육의 한 축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학의 기층구조로서 어문학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 어문학 연구와 교육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21세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외대는 현실 대학과 사이버 대학을 동시에 갖게 되어 전국을 24개 외국어 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외국어 연구와 교육에 관한 40여년의 노후와 첨단교육을 결합시킬 수 있는 우리 대학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에서 시도된 언어학과 지식과 정보통신 기술의 만남은 우리 대학의 21세기를 밝게 해 주는 효시가 될 것이다.

강 덕 수

(리서치학과 교수)



'청소년의 해방구'

송승민 (사회·심리 2)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무관심과 질타가 아닌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전래편·한총련 10년의 역사,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다.
그 역사를 이끌어온 학생운동,
그 발전과 혁신을 위한 제언들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일시: 14일(화) 늦은 6시
장소: 웅인배움터 자연대 강당

참가자: 전국연합 정책위원회 최규업
당대비평 책임기자 문부식
한총련 2기 의장 김현준
이우대 교수 강영구
국민회의 의원 심재권
18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이때의 내용은 학생처와 교직원집위원회가

97년 10월 9일 합의한 사항입니다.

외대 교직원위원회(이하 교원)의 지도
교수 임기 및 부제시

1.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다음 지도교수가 선임되기 전까지 학생처장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전반적인 역할

1.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해 심의, 지도한다.
2. 인력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해 심의, 지도한다.
3. 교원의 사임에 관해 심의, 지도한다.
4. 장학금 수여자의 선정 및 집행에 관해 심의, 지도한다.

매제제자시

1. 교원의 한 학기 재계약에 대해서 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2. 전체전집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최종 편집회의가 끝난 후 편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3. 재계약 과정과 기사내용에 관하여 지도교수는 교원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 (재계약과정과 기사내용에 대한 권한은 모두 교원이 가진다)

운영전반

1. 교원 수습·편집위원의 권리와 제반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편집장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단, 지도교수에게 운영전반에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한다.

부칙

1. 위의 사항들은 학생처와 교원 쌍방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199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대학총장평가간담회(대총평) 실시단이 우리학교를 방문한다. 94년부터 각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대총평은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학부의 경우 △교과 △연구 △사회봉사 △교수 △학생 및 일반 △재정 및 경영 등 6개 영역에 걸쳐 100개 항목, 총 500점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연말 보너스도 요즘 우리학교는 모든 건물들 뒷뜰에는 등 대총평에 대비, 부실히 움직이고 있다. 좀 더 깊어 들어가 보면 학교운영의 전진이 가시적으로 보인다. 법학을 학부로 편성, 각 학과에 따른 우리학교의 준비도나 대총평으로 인한 패들, 또 대총평 자체가 지니는 한계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총 500점 중 120점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교육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학생회 운영의 건전성' 부분이다. 학생회가 지난 1년간 참여한 대내외 활동 내용이 그 기준인 것도 문제지만 학생회 운영의 건전성을 입증 하기 위해 모든 동아리에 지도교수 선임의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요사이 큰 문제로 떠오른 교지 지도교수선임문제도 이 항목의 열 항목 받은 것이다. 이 자체가 학생자치권인이라는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학생평가의 엄정성'이라는 항목은 그 기준에 학사 결과 및 그에 의한 재직자비율이 포함되어 있어 학사재직자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이 지어지고 있다.

'상당지도 운영체계' 항목에 포함되는 학교교수의 학생상담제 실시의 경우, 지난 3월 각 과 교수들에게 학생상담을 하라는 알람적인 지시가 내려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본보 693호 참조) 10년간 공식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던 상담이 갑자기 진행된 것도 그러하니 상당지에는는 날벼락같은 하지 않아 날벼락을 가능하게 한 것까지, 이 모두가 대총평을 겨냥한 구박 및

추기 중 하나라는 불만이 학생·교수 사이에서 터져나온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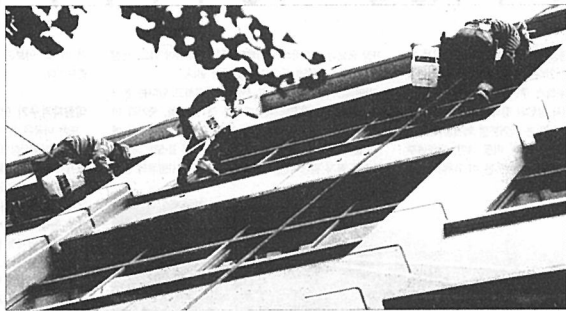
한편 연구영역(70)에는 최근 3년간의 전임교수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수 최근 5년간의 교수저서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이 인문 사회계만 보더라도 1인당 1.48편으로 평가기준선을 웃돈다. 그러나 논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내용의 논문을 여러개로 쪼개어 따로 발표하는 등 "웃잔 놀리기" 식의 편법을 부추리고 있다.

사회봉사영역(30)에서는 국내의 대학들과의 협력실적 항목과 관련, 우리학교가 국내외 대학들과 맺은 학술교류 및 협력 등의 실적이 보고된다. 우리학교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만큼 수적으로 따졌을 때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학교지만(국내 3702건, 해외 654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료교환이나 교수 인교환 등의 수준이 대부분이라 '빛나는 개살구' 격이다.

또, 교수연구(80)와 관련, 우리학교는 교수인적평가제를 97년 3월 1일부터 실시해 왔다. 매

외대의 치부... 가리지 말고 고치자

점수에만 연연 ... 학술교류협정 실적만 높고 내용은 부실



최근 양 배후터에서는 각 건물의 패턴트 철, 대외부 개시관 설치, 화장실 보수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의철을 개로 나눈이 강박관 수를 늘리는 것처럼 대학총평평가 인정제 구획맞추기에 급급하여 형식적인 면으로 치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담국은 학생수에 비례한 강의실 확보나 교수수증동의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2년마다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이 평가자를 실시한 적이 없어(매 2년마다 한하기) 속감평과 다름없다. 현재 심사위원 자체가 선정, 경영영역(100)에서는 △논문 등록의

점되지 않은 상태다.

다섯번째 사실·설비영역(100)의 기숙사 관련항목을 보면, 우리학교 타지역 재학생 중 20.99%가 기숙사에 입사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용인 학생수를 합한데 용인 모험사 수용인원을 나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양 배후터를 따로 산출했다면(서울 학생 중 모험학사에 기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서울은 0%, 용인은 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불치를 안고 있는 학부재·계열재문제의 경우, 과발로 산출할 때보다 학부·계열별로 산출할 때 실험실습비·교수 수 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준도(세입 중 79.8%) △논문 법인전입금비율(8.8%) △의대발견협정인 분부금에 의존하는 기부금비율 등의 고질적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그 외에, 갈등관리체제에 대한 항목에서는 대담담국과 대담담국원 사이의 갈등문제를 다룬다. 교지권점자결문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항목이다.

이성과 같이 대담담국(타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대총평을 통해서라도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번만 잘 넘겨보겠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3년간의 실시로는 학교실적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담담국이 제출한 자체평가면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총평 자체의 한계점 때문이다.

만나보기 - 기획조정처장 박석구 교수

“열악한 재정구조가 우리학교의 취약점”

인정시 이점보다, 불인정시 손해가 큰 네거티브 시스템



대총평에 대한 전진세 어떻게 되나...

지난달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자체평가연구소를 개설했고 이에 대한 학위를 위해 29일(수)부터 대총평실시단이 우리학교를 방문한다.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보디사하 환경비와 중이다.

대총평 통과 후의 구체적책은

구체적인 건 아직 없다. 대신 통과를 못하면 하류대학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취지는 대담담국과 연계시키자는 것인데 아직은 제하면 그럴

우리학교가 평가항목 중 가장 내세울 부분은 교양교육을 포함,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커리큘럼이다. 또 교육개혁위원의 특성화대학이라는 점도 강점 중 하나이다. 외국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도 클

비판 지적 취약점은 무엇인가
알다시피 열악한 재정이다. 등록금 수입도 그렇고, 법인전입금도 재단의 자금관리가 잘 없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대총평을 착실하게 준비했다.

항목을 정면이 비칠 수 있는 94년 이후를 미루고 싶었다. 정면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어차피 94년부터 2년마다 한 주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면이 바뀌거나 교육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총평의 패치가 없이 지적되고 있다. 등록금에 올선대립 대총평위원회에서 기획조정처의 역할은 대담담국으로는 상구역할을 대담담국으로는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생들이 대총평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실시단이 학생을 임의로 선정,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의 많은 협조바란다.

대 총평의 태생배경과 한계

외국자본을 부르는 방법... 대중평

정부지원 둘러싼 경쟁으로 비명문대 위기 닥칠듯

"대학교육의 수월성·효율성·핵심성·자율성·협동성을 높이고 대학재정의 확충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킨다" 교육부가 밝힌 대학총평발전정책(대총평)의 취지다. 그리고 이 취지에 걸맞게 결과가 우수한 사립대에 입학정원의 증원을 허용하는 한편, 국고보조금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담근'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여야 하는 '경쟁' 원리가 10월말 평가를 앞둔 우리학교 교정의 분주함속에 묻혀있다.

그러나 하부가 다르게 걸포되고 있는 본교의 화려함속에 대중평으로 인한 굴절은 커지고 있다. '대총평 점수 갈라기'에 치우친 과학적 학사행정과 학생자치권발동의 자율권 침해가 그것이다.

열거하자 하면
그러나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행정 대

총평이 정부의 새로운 대학통제수단이라는 것이다. 중앙대 교수처럼 하위 교수는 '정부'가 대학평가라는 제재와 행정적 제재적 지원이라는 홀담무를 가지고 말갈들이기 식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인성이 짙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평은 대학간의 지나친 소모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대총평은 대학간의 과대 경쟁만큼 유발할 것'이라고 총의 대 한 보직교수는 경고한 바 있다.

교육개방이 고 앞에 몰아닥친 상황에서 국내 대학끼리 힘을 합쳐도 외국 교육자본에 맞설까 말까 하는데 국내 대학끼리 경쟁하게끔 하는 것은 불타없이 힘한 축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안싸움으로 외부침략에 손대 못쓰는 상황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대중평은 대학간 격차를 더 크게 하고 대학의 사열화를 부추칠것일 것이다. '평문대'는 좋은 평가를 받아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았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비명문대는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 현하기 때문이다.

대학 사열화가 가속화될수록 학부모들의 '일류대학'도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 대학간 격차를 해소해 학부모들의 '일류대학'을 치유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과학고·외고 비교대상제를 둘러싼 현 사태는 우리 사회 일류병의 현수조를 격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살 길 막막한 비명문대 경쟁자들은 지구책 모퉁이라는 말뿐아래 국내에 진출한 외국 교육자본과 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대총평은 외국 교육자본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을 얻는다.

'우리 사회에서 대총평은 딱박파도 같다. 날카로운 바늘을 갈고서 생명을 위협하는 미끼인 것이다. 갈고서 있을 희생, 교육시장개방의 거센 풍랑을 가리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본교 졸업생이 제출한 본대총평의 본질은 삼박함을 안겨주기까지 한다.



한국산업은행에서

당신의 꿈과 미래를 펼쳐십시오

큰은행, 한국산업은행이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신입행원 모집

- 채용인원** : 50명 내외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 모집학과** : 상계경영 및 법·행정학 전공 또는 부전공
토목, 건축, 전기, 전자, 기계공학 전공
수학, 물리학, 통계학 전공
- 응시자격** : 4년제 대학졸업 및 '98.2 졸업예정인 분
대학원생 성적합계 B학점 이상인 분
'70.3.1 이후 출생한 분
TOEIC 780점 또는 TOEFL 560점 이상인 분
병역기록이 사실인 분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97.10.15(수)~10.24(금) 10:00~17:00
한국산업은행 본점, 전선센터, 강남,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부산북부, 대구지점 및 각국교 취업포도실
원서접수 : '97.10.22(수)~10.24(금) 10:00~17:00
한국산업은행 본점 (우편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입행원서(당행소정양식/명함사진1매 부착)
대학원 성적증명서(만점인 4.0/4.3/4.5기준 작성분)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원본('95.11.1 이후 취득분)
주민등록초본(병역필지에 한함)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7기 타** : 세부사항은 채용요강, PC통신 Hitel go kdb*, Internet 산업은행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l.co.kr/~kdbmst)

문의
한국산업은행 인사부(TEL: 398-6758, 6788)

신용 1등급 은행

한국산업은행

예비군 기본교육, 시간미달자 교육

- 1.기본교육 및 시간미달자 교육일정** : '97.10.27(월) ~ 10.30(목) : '95. '96. '97.97시간 미달자
'97.10.31(금) : '97. 제2학기 복학생
- 2.교육대상** : 가. '97학년도 2학기 복학생 중 지역에서 8시간 이하(소집점진시간 제외) 교육이수자
나. '97년도 전반기 대학직업예비군 기본교육 8시간 불참자
다. '95. '96. '97년도 교육시간 미달자
- 3.교육장소** : 금곡 훈련장 (집결장소:학교 또는 금곡훈련장)
- 4.유의사항** : 가. 비상계엄사태에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의 훈련일지와 교육시간을 확인한 후 훈련시에 지참할 것 (시간 미달자에 한함)
나. 개별 입소시는 07:50까지 금곡훈련장에 도착 바람.
(복대중교통 안내 : 소집통지서 뒷면 참조)
다. 지연도착자(08:00 이후 군부대 도착자)와 복귀위반자(모자, 군화, 예비군비, 미복합자 및 예비군복과 모자 색상이 일치되지 않은 자)는 입소시간에 관계없이 귀가조치 및 불합격처리
라. 교육일지를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외의 입소는 불가

1997. 10.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98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 1.모집인원** : 00명
- 2.지원자격** : -선배대학 졸업자(대학원생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입학한 1년 기준 만20~24세에 해당하는 자
-과거대학 졸업사실이 없는 자
- 3.지원서 교부 및 접수** : '97.10.10.31 (목요일 평일만)
2차 : 신체검사
- 4.신발** : 1차 : 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
2차 : 신체검사
- 5.합격자 발표** : 1998. 3. 10
- 6.특전** : -의무 및 징군 고과 병과분류 보직 혜택
-대학원 학업보조 장학(대학원생 4명 이내)
-대학원 학업보조 장학(대학원생 4명 이내)
- 7.문의처** : 학군단 행정팀 (961-4411, 4412)

'97 군 장학생 모집

- 1.모집인원** : 1학년(000명), 2학년(000명), 3학년(000명)
- 2.지원자격** : -선배 - 1학년('95.1.1 ~ '96.1.1 출생자)
-2학년 - 2학년('95.1.1 ~ '96.1.1 출생자)
-3학년 - 3학년('95.1.1 ~ '96.1.1 출생자)
- 3.지원서 교부 및 접수** : '97.10.10.31 (목요일 평일만)
2차 : 신체검사
- 4.신발** : 1차 : 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
2차 : 신체검사
- 5.합격자 발표** : 1998. 3. 10
- 6.특전** :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시(입학 1차, 2차, 3차)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 안함)
-대학원 학업보조 장학(대학원생 4명 이내)
-대학원 학업보조 장학(대학원생 4명 이내)
- 7.문의처** : 학군단 행정팀 (961-4411, 4412)

▶나보기-역사비평 책임주관 서중석 교수(성균관대 사학과)

대중과 함께하는 올바른 역사인식

‘역사비평’ 창간 10주년, 다양한 대중화 모색할 터



“역사비평이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역사연구의 대중화와 새로운 역사인식의 정립을 위한 대중적 사치를 표방하는 역사비평은 80년대 중후반 들어 우리 사회의 변혁운동의 흐름 속에서 태동한

학술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비평의 기획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서중석 교수와 만나 역사비평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편집자

역사비평의 창간 의도는 무엇이었나
우리 역사 가운데 특히, 한국 근현대사는 교육되지 않았을 뿐더러 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그 부분은 역대 독재정권들이 자기 합리화의 선전홍보적 자원, 그리고 반공교육의 일환으로 왜곡해서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역사비평을 만들게 되었던 것은 우리 민족사를 올바르게 복원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80년대 중후반 들어 자주, 민주, 통일운동들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근현대사 연구와 대중화 보급이 필요했다.

역사비평이 포괄하고 있는 역사의 대중화는 어느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가

역사비평이 다른 학술지보다는 많이 팔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역사비평에 실린 글이나 논문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줌으로써 일정한 파급력, 영향력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3.1운동에서 33인은 민족대표 아니다, ‘반탁운동은 분단노선이다’, ‘김일성은 가짜가 아니다’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실렸던 ‘우리역사바로알기’라는 기획을 통해 일반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 부분들을 알기 쉽게 다루었던 것도 대중화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학술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우리도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화의 길이 아직은 멀다고 생각한다.

역사비평은 의미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내용들을 소개해 달라

주로 한국현대사의 굴절곡절한 정점들을 많이 소개했다. 초기에는 북한의 주체사상, 우리 사회변혁운동의 진전과정, 우리 민족해방운동의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이 특징으로 실렸

다.

그리고 ‘백남준’, ‘홍명희’ 등의 인물탐구와 ‘전봉준과 김홍도전정’ 등도 관심을 끌었다. 국유보수세력들의 이승만실랑이 운동이나 박정희의 신동문 등이 살아날 때에 맞추어서는 반론의 연구결과를 때마다 실었다.

또한 미국문제, 통일문제, 세계화 문제 등 역사적, 현실적으로 중요한 한국현대사의 정점들을 대토론회나 특집들의 형태로 다루었다.

역사비평은 처음의 관점을 일관되게 지켜 10년을 굳건히 버텼다. 그 비결이 있다면

더러 어떤 부분들보다도 왜곡되고 잊혀졌던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우리들의 집념이 있었고 여러층의 수요도 만만치 않았다.

87년 6월창간호 이후 쏟아져나온 진보적 학술지들은 주로 사회구성체 논쟁이나 당시의 사회현실과 직결된 문제를 많이 다루었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게 흘러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해 폐간된 것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역사비평

은 생명력 있는 소재를 많이 다루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과 문체를 택했다. 그리고 때를 놓칠 수 없는 점은 많은 화제를 감수하고서도 경연에 책임을 다해준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점이다.

앞으로 역사비평의 편집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연구되지 않은 부분과 왜곡된 부분이 많다. 계속해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 우리 현대사의 증후보와 정확한 인식, 그리고 올바른 남북관계 수립을 위한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다. 또한 세계 지성인들의 고민,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도 역사비평의 고민으로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다룰 것이다. 특히 20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실는 등 다양한 대중화의 방법을 고민할 것이지만 시대의 분위기를 추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허윤숙 기자

학술단신

‘통일과 국적법의 문제’ 학술포럼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포럼이 17일(금)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날 13일 입법고된 ‘국적법개정안’이 기획되었다. 또한 이번 포럼은 정부가 이미 가입한 각종 국제협약상의 남녀 평등 원칙에 배치되는 현행 국적법의 노후 요소와 기타 입법상의 문제점도 밝히려고 우리 국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의의가 있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대학교 법학과 이정희 교수, 국민대 고영명 교수, 서울대 정인섭 교수 등이 참여한다.

동문 사회과학자 동무회 발족

지난 11일(토) 의대동문 사회과학자 동무회가 창립총회와 강연회를 가졌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동문들이 중심이 된 동무회는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학교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무회는 이날 정경환(서울대 87·국방대학원 교수), 유승남(독일어·국민대학교수), 조희환(중국어 89)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또한 고문으로 추대된 박필수 전 총장의 ‘기세를 향한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강연도 진행했다.

▶접-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통계수치 앞에 사라진 ‘식민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재논의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조석근(상지대 경제학 교수)의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라는 ‘식민지 수탈론’의 비판에 가까운 글이 ‘통계와 비평’ 여름호에 실린 데 이어, 이번 가을호에 ‘정태현(고려대 한국사 강사)의 ‘수탈론의 속류와 속어’라는 식민지 수탈론’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논의의 기초가 되는 근거로서, 올해 인용사에서 출판된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에 수록된 8편의 논문은 흔히 ‘식민지 수탈론’으로 일컬어지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수탈성 여부 문제인데 우선 기존의 ‘식민지 수탈론’을 비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수탈론은 일제의 수탈을 자본주의적인 수탈이 아니라, ‘원시적 약탈’로 규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또한 ‘식민지 수탈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외면하고 한국자본주의의 자생적 발전의 원천을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발명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토지신고과정에서 일제의 토지약탈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그 비중이 매우 적었으며, 토지의 성격 역시 산간을 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를 볼 때 일제의 수탈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토지조사사업은 황토사상에 기초한 국가의 토지재배라는 봉건성과 토지소유에 대한 자외적 수탈이 전제되었던 구한말 토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간의 사적 소유를 근대적 규정으로 법안화하고 중영제도를 구비하여 근대적 소유제도 및 지세제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파악의 측면에서는 사업이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나 소유자 파악의 측면에서는 불철저했던 구한말의 관부장정을 계승하여 근대적 토지제도개혁을 완결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주인들은 일반인민들도 사업에 잘 협조했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이 정치적 수준에서는 주권의 관세주권 약탈, 민족이탈의 수탈성을 논할 수도 있었지만, 경제적 수준에서는 대일 수출시장에 관련된 농업, 지주, 상인들에게는 유리한 시장조건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게해주었다.

국가의 이유·동으로 해서 앞으로 토지조사사업의 연구에 있어서 경제적인 수준의 의의만은 분명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상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론의 내용도 만만치 않다.

기존의 수탈론이 식민지 경제를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 ‘원시적 약탈’로만 보고 있다는 비판은 수탈론의 문제의식이 식민지에서의 자본주의의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한 바탕 위에서 고민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또한 기존이론은 식민지 경제가 어떠한 구조 속에 있었으며 한국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자본주의화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개발, 수탈에 내재된 총체적 의미를 역사적,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주제 사례연구에 따르면 조선인 지주들은 사업이전에 이미 대지주로서의 발전을 마친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의 성과 중 하나가 구한말 광무양전 때까지 유지된 일본인의 토지소유 금지조항을 해제함으로써 식민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일본인에게 대할 나위없이 좋은 경제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제가 전제체제로 접어들면서 수탈과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까지 정착시킨 제도나 기구를 통해, 그리고 식민지적 개발을 통한 성장에 힘입어 자금, 물자 인력에 대한 최대한의 수탈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근대적 소유권 및 지세제도의 확립이 구한말 정부가 수행하던 지주제 개혁을 완결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한말의 정부가 근대화의 축적기인, 즉 개혁의 물적 토대로 정착하려던 지주제 및 지세수입은 일제의 지지가, 저질 금융정책의 기초, 식민통치의 재정기초로 전락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화를 위한 축적기인 아니라 일제의 조선통치 착취공간, 언어이전 매커니즘으로 전



화되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인민이나 농촌주민이 호응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일반인민이나 농촌주민이 호응했다는 국권개혁(조선총독부)에 대항한 3.1운동이 토지조사사업 직후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일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경제논리가 과연 정치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만큼 구분 될 수 있는가?

해방후 남한의 경우 과거 일본인소유(신한공사)농지가 경지지의 12.3%나 되었고 신한공사 경지의 52%가 기흥지고 수익금 높은 장라도에 집중되었다. 그만큼 조선인 중소지주들이 몰락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의 결과일뿐일 수 없다. 경제논리는 식민지적 환경과 식민정책에 규정된 범주 안에서 재단된 틀일 뿐이다.

이희진 기자

SK

10월 1일 유공이 SK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한국경제의 원동력 유공이 세계적인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이 되기 위해 SK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가는 힘, 에너지·화학에 있습니다.

힘있는 나라를 만드는 에너지·화학 - SK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사명	회사명
유공해운	SK해운
유공상사	SK하이닉스
유공건설	SK건설
유공화학	SK화학

*기획투자: 유공, 홍보: 유공/재무: 유공/인사: 유공/기술: 유공/제조: 유공/판매: 유공/서비스: 유공/고객지원: 유공/교육: 유공/연구개발: 유공/경영지원: 유공/법무: 유공/회계: 유공/정보통신: 유공/환경: 유공/안전: 유공/보건: 유공/복지: 유공/기타: 유공

한국의 한-
SK 주식회사
http://www.skcorp.com

대선이 있는 풍경

1. 대선전 정치, 어떻게 돌아가나
2. 대선과 언론보도
3. 무언가 준비하는 공인정국
4. 민족민주운동집단 무엇을 준비하나

역대 대선을 돌아보면 항상 공안사건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92년 이선실 간첩단 사건이다. 공안 사건은 국민의 불안·안보심리를 자극, 선거에서 여당을 강요해왔기 때문에 공안기관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다. 올해 역시 민족민주운동집단의 가장 큰 우려는 "무언가 준비할텐데" 하는 걱정일 것이다. 이에 본보는 동아대 간첩단 사건이 대선을 위해 준비된 것 은 아니지, 요즘도 공안기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언론플레이, 청소년보호회는 명목이라 사회단체 기만지향단체까지 '민적' 협의를 써주는 공인정국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한지자

증거 없는 간첩단... 조작의혹

안기부법 개악이후 첫사건, '우려'가 '현실'로

청소년법, 대선전 '진보' 규제수단

사회단체 기관지에 청소년법 적용



한지자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조작 의혹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부산지부가 '동아대 자주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을 간첩혐의로 추가로 확인,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동아대측과 부산지역 법조계, 시민단체가 감압수사에 이은 '조작'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난 9월 29일(월) 수시기관의 발표(정확히 공식발표 없이 수시자료만 유출됨)에 따르면 동아대 자주대 사건과 관련, 지난 9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배운주(28, 여, 일문과 졸, 외국어학원 강사)와 지은주(28, 여, 일문과 졸, 외국어학원 강사) 등 5명이 북한 노동당 입당 및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수시자료에 따르면 배운주와 지은주는 지난 92년 동아대 일문과를 졸업하고 94년 3월부터 일본으로 이력연수를 갔다가 조현련 동지부 창립단 교육부장 오카다 이치로(36)에게 포섭돼 지난 94년 11월과 95년 8월에 각각 자리에 서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 이후 이들은 조현련으로부터 활동자금을 받고 95년 11월 귀국한 뒤 서병만(27, 경원4과), 임주영(23, 무역4과), 도경훈(25, 응용물리4과), 4. 총학생회장(전) 등 후배 5명을 포섭, 지난 9월 7일 동아대 학생회에서 노동당 입당식을 했다. 이후 이들은 '한총련 총노선' '부활총련 총노선' 등 국내 학생운동권 관련 문헌 등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된 동아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노동당에 입당시킨 도경훈을 후보로 내세워 공직급 3학년대표를 선거자금으로 활동해 당선시켰다.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도경훈은 다시 한총련 중앙위원, 부총련 부총무위원 등을 맡아 '천북 통일투쟁'을 주도해 왔다는 것이 수사내용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시기관에 의해 '간첩'이 만들어졌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작 의혹 또한 언론을 통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는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없이 감압적 수사에 의한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다. 수시기관은 공직급과 노동당 입당원서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작과를 비롯한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황이다. 또 노동당 입당원서 또한 피의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이 전부다. 입당원서의 형식이 5명 모두 다르다는 것이 원사가 감압적 수사로 인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1번이나 수사했다는 안기부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들 모두 안기부 수사과정에서는 관련자임을 사인했지만 검찰로 송치된 이후 진술을 번복, 부인하고 있다. 임주영과 지은주 등 4명과 만났을때 공무원인들에게 대한 협박과 회유, 몇차례 구타 및 가족행위 사실을 털어 놓은 점과 서병만과의 약혼녀

에게 '너도 같이 일본에 갔으니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한 점 등은 처음 진술이 협박과 회유, 가족행위를 통한 감압적인 수시과정에서 정상적일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여러가지 정황이 상식 수준을 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인위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배의 지의의 경우 88년부터 2년 가량 일상적인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한 점도이며, 그후 운동권과의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의의 경우 예초 자진 출두해 학교인 자력으로 충분한 조사를 받고 의혹이 없어 귀가했다가 다음날 '간첩'으로 구속된 경우이다. 또 군인의 경우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진 출두했다가 '간첩'이 되어버린 것이다. 셋째 공안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중심의 발표와 함께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사건에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 안기부가 발표 없이 교묘하게 언론사에 정보를 유출시킨 것이나, 이 또한 '사실'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인위'적인 사건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전부터 조현련 관련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첩보가 들렸던 점이 확실하다. 이에 대해 동아대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학생회에서 조현련 관련 얘기가 전부터 흘러나왔고"고 말하고 "9월 10일 사람들이 무더기로 연영한 후 그 대부분이 졸업생이었던 알고 '단순한 조직사건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즉 졸업생 중심의 자주대 사건을 일으킨 것이 결국 간첩단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공작수사인가 하는 의혹이 짙은 것이다.

대법원의 이광형(부산법기법 책임간사)씨는 "변호인과 대법원 모두 무죄를 자신한다"고 말한다. 예초 발표와는 달리 지난 10월 9일(목) 부산지검이 간첩단사건과 관련해 임주영씨와 서병만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에 간첩죄는 재의에 있다. 이에 대해 이광형씨는 "증거가 내용과 맞지 않고 있는 안기부가 평가 잘 안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것의 반증이다"고 말한다.

이번 안기부 사건이 대법원의 주장대로 조작된 부분이 있다면 안기부는 '정권'의 안전을 기하려는 곳으로 다시 한번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간첩단 사건은 작년 날치기로 통과된 안기부법 개악 이후 최초의 대규모 조직사건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고도 얘기한다.

결론은 "안기부로부터 간첩죄가 추가돼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간첩죄를 추가하겠겠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어떤 혐의가 추가될 지 모른다는 말이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인단면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운숙 기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 금지에 대해 적용해 오던 청소년 보호법이 한 사회단체의 기관지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해 제1차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19일 한국간첩물품관리위원회(한위협, 의장 장성봉)가 서울시에 단체협의회(서정협, 의장 장성봉)가 서울시에 대학가의 8개 사회과학자에서 무료 배포한 '서울신문 8호'를 이적성·친박성·독재성을 근거로 청소년유해매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8호에는 "7.14북독독성명령의 의의와 통일운동의 전망" 민족주의전선의 주도로 통일지향의 정권을 수립하자 등의 통일 관련 내용과 6월항쟁 10주년을 맞아 한총련의 제주는 민족총의의 달성이다"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이 들어 있다. 서정협 의장은 장성봉은 "서울신문은 비매매로 사정에 비추어는 홍보자료였으며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며 "정권 유동성이 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인권 형성과 정서 함양에 유해로운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접하지 못한 사회의 문제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균형잡힌 안목을 재교육하는 면에서 오히려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간첩의 결정을 어찌하구 안하겠나. 또한 간첩에서 무가치한 이 간첩물을 서정에서 일부를 사서 나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밝혀진 간첩의 어수룩함 때문에 이번 결정이 간첩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장성봉씨는 "청소년보호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공인정국과 발췌해 '표현'의 자유와 정보운동의 규제수단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광진 변호사는 "간첩의 결정은 담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간첩물"을 포노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동시에 "서울신문"이 반사회적인 매체라는 판단도 지의적"이라고 말한다. 또 조현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청소년보호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심의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한국간첩물품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라고 심의 결정된 서울신문창간40주년기념특집의 기관지 '서울신문'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0일(금) 오후 3시에 간첩물 청소년 유해 매체를 심의 결정에 대한 항의의 서한 전달식을 하려고 했으나 건물 앞에 행사가 배치되어 있는 등 공공기관의 방해로 인해 무산되었다. 항의서한의 내용은 간첩의 유해매체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것. 서정협이 제기한 제심의 과정에 소명의 기회를 줄 것과 간첩이 언론출판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허운숙 기자

간첩사건

안기부와 언론플레이

지난 9월 29일 동아대 자주대에 관련 간첩 사건 수사결과가 안기부에 의해 연합통신과 KBS에 유출되면서 또 한번 언론이 정권에 의해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정권의 '언론플레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보안수사대와 안기부 부산지부는 합동으로 동아대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주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지난 29일 오전중에 수사결과를 합동발표하기로 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요청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합방성 피의자(사실공표죄(피의자의 사실)를 공판정구장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들어 발표를 유보하고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보도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안기부는 각 언론사에 '대여'를 낚았음을 알시, 크게 기사화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안기부와 검찰 중 어느 기관도 수사결과를 공식발표하지 않은 채 안기부에 의해 연합통신과 KBS에 70여쪽에 달하는 수사결과가 슬쩍 흘러들었다. 이 때문에 공안정국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부당함을 알면서 수사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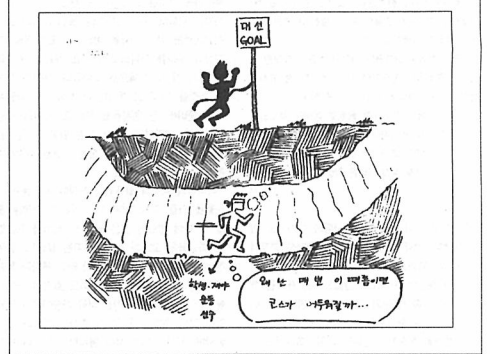
의 언론플레이를 펼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안기부는 간첩단 사건이 부산지역 사건임에도 부산 지방 언론에게는 일체의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보안수사대의 언론인들은 "부산 기자들은 지난 9월 10일 사건 초기부터 줄곧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왔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무관한 점이 많았으며 조작의혹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점을 안기부가 알고 지방언론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9월 30일 동아일보의 경우 이 사건을 1면 '한총련에 간첩침투 혐의'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릿기사로 내보낸 반면 부산지은 일간지의 경우 '자주대 조작사건' 또는 '의혹'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즉 안기부는 중앙언론을 통해 홍보의 극대화를 꾀하고 사건을 자재해 알고 있던 지방언론은 의외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동아대 간첩단 사건이 공안기관의 발표대로 북의 간첩단인, 공안기관의 의도에 의한 조작인지를 밝혀내는 작업과 함께 공안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언론플레이 또한 그 의도와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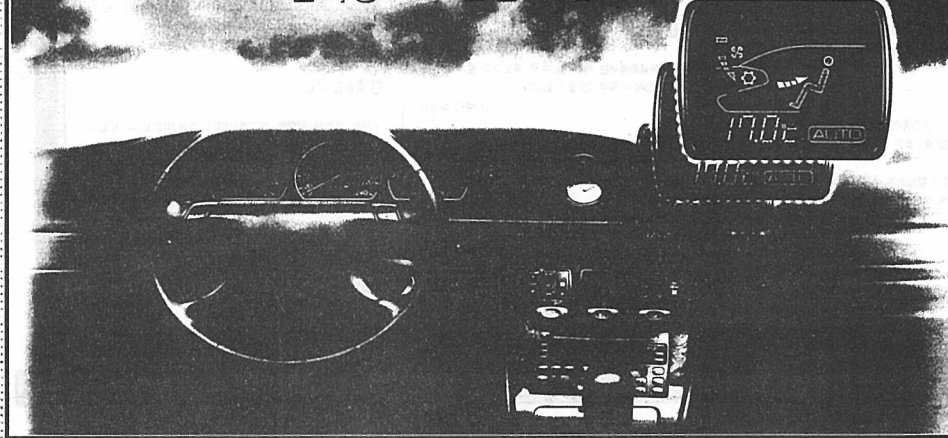
임승희 기자

외 대 만 평



패작한 자동차 문화공간!

한라공조가 만들어 갑니다.



찬란한 햇살, 깨끗한 물, 싱그러운 숲, 그리고 자동차! 한라공조는 인간과 기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쾌적한 자동차 문화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1986년에 만도기계와 포드자동차의 합작으로 설립되고, 그동안 자동차용 열교환기 및 공조기기를 생산하여 국내외의 우수한 자동차업체에 공급해온 한라공조는 창립 10년만에 달성공회 세계 10대 자동차 공조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찬란한 햇살, 깨끗한 물, 싱그러운 숲, 그리고 자동차! 인간과 기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환경! 한라공조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쾌적한 자동차 문화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한라공조는 "인간, 고해, 기술"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와 복지를 추구하는 세계 제일의 자동차 공조업체로 성장하겠습니다.

HCC 한라공조주식회사 Hanla Climate Control Corp.

본사 및 대외공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23번지 TEL: (042)930-6114 FAX: (042)930-6129
 영남공점: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44-1 TEL: (033)801-6114 FAX: (033)81-0220 ~ 1

한총련 · 학생회 모범의 현장을 찾아-① 경기남부총련 비대위

“밑으로부터의 민중연대로 탄압에 맞서겠다”

상층만이 아닌 골간 일꾼의 혁신으로 한총련 사수해야

김영삼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경제위기, 시정개발, 대학교, 부정부패 등 5년간의 실정이 고스란히 민중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원시시 김영삼에 대한 민중들의 다양한 분노를 모아 공안탄압 분석과 한총련 사수의 거대한 퍼즐을 만들아가는 것은 한총련이 짊어질 역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민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범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총련 사수와 공안탄압 분석을 위한 경기남부총련 비상대책위원회(남부총련 비대위) 위원장 김재도(서울 농대행정학과)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다.

편집자

비대위가 꾸리진 시기과 목적은

5기 한총련 출범식을 거처면서 불어닥친 김영삼정권의 비정상적인 시정개발로 한총련은 민중들의 한강에서 좌초노선, 일파사나이의 중대국면에 접어들었다. 한총련이 정권의 폭압에 무너져버린 자주·민주·통일의 밝은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하여 김영삼의 폭압에서 한총련을 사수하는 문제는 모든 청년학생들이 접하고 나가야 할 초기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부총련의 경우 양창호 의장님이 연행되신 이후 민의와 구실을 새로이 세워주고 8만 남부총련 학우가 정권, 주, 주장을 뛰어넘어 한총련을 사수하기 위해 남부총련으로 단결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제기했다. 따라서 정권의 탄압에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 비상시기에 맞춰 비대위를 꾸리게 됐다.

지금 시기 민중들의 연대활동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연대사업이 중요치 않은 시기는 없다. 이 땅 현실을 보면 때, 세살살 · 세살 · 세살의 민주주의,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만들기위해서 민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특히 김영삼의 공안탄압이 한총련에게만 가해지는 탄압이 아닌 한총련 주체들을 목표로 정권의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초토화시키려는 것이기에 지금 이시기 모든 재단체들의 연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느꼈던 실책은 무엇인가

민중연대실천단의 활동으로 지역 노동자들과 통일운동의 초석을 이루었고 지금까지 공안탄압 분석위원회를 서로서로 민중과 사담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역통일선봉대는 활동시기 각 단체들과 긴밀한 화를 가지고 그 속에서 다시한번 남부총련, 한총련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로 지금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공안탄압분석, 김영삼정권투쟁을 공동으로 펼칠 것을 합의하고 있다. 몇차례의 공동투쟁을 일으켰고 이후도 그러하다. 10월 5일 김재도 이사장 관련 광주 집결투쟁을 할 당시 지역 노동자, 철거민, 청년단체들과 함께 광주에 갔었다.

한총련 사수와 공안탄압 분석에 대한 민중들의 반응은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공안탄압의 본질을 알고 있다. 예전시기 대선을 앞두고 술하게 자행되었던 정권의 수많은 반공, 반북미대결로 공세였을 이젠 우리 국민들에게 머뭇거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한총련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적 반응은 한총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국민들과 함께 하는 한총련, 국민들의 믿음으로 되살아나는 학생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권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한총련 사수에 대한 의식화 또는 낮아라도 학생운동을 거부하는 민중은 드물다. 그러나 아직 많은 민중들이 정권의 공안탄압 실태를 접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가급적 민중 공안탄압에 대한 국민 선전을 조직적으로 벌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김영삼 5년 동안의 모든 악정 · 실정 · 학정, 그리고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행위로 모든 민중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분노는 반김영삼, 반신권당파의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하여 이런 전국민의 열망과 분노를 하나로 엮어낸 전국민적인 반김영삼투쟁선진, 범민주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주축으로 광범위한 재야단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지역차별의 전선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의 기초로서 많은 단체들과 긴밀한 화를 마련할 것이며 공동투쟁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층 중심의 연대가 아닌 밑으로부터의 연대를 피하기 위해 남부총련 각 단위에 대한 지도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총련 사수와 혁신의 방향과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한총련에 대한 혁신이 한총련의 노선에 대한 변경, 즉 자주 · 민주 · 통일에 대한 포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겠는 데도 초점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한총련은 그 강령에도 나타나있듯이 백민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에 대한 혁신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간 한총련이 그 위상에 맞게 활동하는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상층만이 접하고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다.

한총련, 지역총련,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과학생회까지 이르는 모든 골간조직 성원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자주적 대중조직의 위상에 맞게 정경 모든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꾼들의 반성 · 혁신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학생처가 학생처

○...학생자치권을 탄압하는 학생처에 앞서는 우리의 학생들 드디어 학생처에 항의방문 했는데...
직원들 흥분하여 학생들을 징계시키겠다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를 본 학생기자들 자원들의 모습을 찍자, 학생부처장이 기자에게 손찌질(?)을 했다.
이를 본 우리의 크로니클러 한미다 하는데, “학생처가 학생처?”

(송)

○...안기부 6시 뉴스를 만들드리셨습니까.

국가안전기획부는 동아대를 1년 반동안 수사해온 결과 어학수강 졸업생의 간첩활동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곧 상과합니다. 사건은 터트려 왔는데 증거가 없어 안기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안기부의 한 관계자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작년 안기부법 개정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증거는 어떻게 할까?”

(송)

한총련 · 학생회 모범의 현장을 찾아-② 이석석 조문단 참가기

침울한 시대의 희생 더이상 없기를
소중한 깨우침의 실천으로 ‘권력의 잔치’ 끝장내야

87년 6월형은 재현되는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그 가능성은 누구도 의심치 않았던 5기 한총련 출범식. 그러나 ‘이석석 사망’으로 정권과 언론의 음모적 폭력에 한총련의 ‘도덕성’은 비장감으로 내몰렸고 지금까지 그들의 사상 · 물리적탄압의 공중은 하루하루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우가 이뤄졌던 시대의 아픔이 일대 한 청년의 죽음에 한총련은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고 법적 ·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대학 최초로 이석석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죄, 반성하여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지키고자 했던 고려대 조문단은 큰 의의를 지닌다.

그 당시 조문을 직접 다녀온 학생의 글썃 실는다.

편집자

출발식이 지나고 이제 막 시합이 다가고 있을 때였다. 선배 한 명도 나에게 출발식 과정에 서 프락치 혐의로 구타, 시방한 고 이석석 조문을 하러 해남에 갔다오지 않았느냐는 제의를 했다. 정권이 학생운동의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편입이겠더라는 경

각실에서 나는 기꺼이 그 제안을 승낙했다. 다소 위험부담이 따르는 여정이었다. 경찰과 프락치들의 미행과 피하기 위해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부리나케 기차를 타고 광주에 갔고, 거기서 해남까지는 시외버스를 타고 갔다. 해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이미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KOS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기차들과 함께 이석석 데모로 찾아가고, 우리는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이석석 어머니께 우리가 준비해 간 편지들을 드리고, 사죄의 뜻을 전하였다. 어머니는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계속 눈시울을 붉히셨다.

어머니의痛哭과 실세없는 눈물에 우리를 역시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아마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비록 이석석을 취조했던 학생들은 고의가 아니었지 모르나, 결국 한 생명을 이렇게 떠나보낸 이 땅의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가슴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수발을 우리에게 한시도 먹다 말아 놓아서, 우리가 마치 석이 형처럼 느껴진다면 자

식의 죽음을 애도해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께 절을 드리고 편지를 읽어 드리며 보냈던 시간을 정리하고, 우리는 석이 형의 묘소로 향했다. 우리는 장례행 이후,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했지만, 어머니도 만나보고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싶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기쁘게 우리를 반겼고, 어머니는 딸의 자식을 슬프게 너무나도 참을 수 없는 분노였지만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고 돌아다니는 어머니를 보니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보고 서울로 무사히 올라와 길을 향하던 중에, 그리고 이 길을 다시금 가기 위해 이석석 조문을 할 것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지금 모습을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보게 되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석이 형처럼 현실의 모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우리 떠나간 석이 형 앞서 평생에 걸친, 또 학생운동과 한총련의 역사를 위해 열심히 살았노라고 다짐했었던,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한시도 먹다 말아 놓았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우리 떠나간 석이 형이 죽어갔듯이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죽어갔다. 바로 석이 형의 고향과 가까운 광주에서 김준배 학우가 또다시 우리의 길을 떠나갔다. 정권의 강력한 탄압에 의해서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벌어졌(?) 것이다. 그리고 또한 김준배 학우의 죽음 이전에는 아직도 두 달이나 경호대의 영안실에서 그 원한의 눈을 감지 못하고 계시는 박순덕 열사도 계신다.

더 이상은 나와, 나를 둘러싼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들의 일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석이 형이 죽어갈 수 밖에 없었던 우리들 스스로의 오류를 반드시 냉철하게 점검하고 비판하며 새롭게 변화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석이 형의 죽음으로 인한 소중한 계우함마저도 헛되이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 석이 형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자신들의 집안에 도움이 되었다며 다들스럽게 여기고 있을 권력을 쥔 자들은 자기들 그자 대통령에 피아보았다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우리 민중들의, 노동자들의, 국민들의, 외젠은 정그리 무시한 채 단지 자신들의 권력에 눈 멀어 있다. 우리 현대사적 지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겼던



송

두 학살자에 대한 사면을 운운하고, 경계위기에 대한 책임들을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에게 저항을 하는 모든 세력들을 마녀사냥으로 거세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다시금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할 때이다. 진정한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대대적인 그들만의 권력재편의 잔치를 그대로는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보전진해 나가는 것만이 석이 형과 그 부모님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일테니 말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우리 길을 떠나간 수많은 아들을...

윤상필

(고려대, 문과대 · 영어영문 3)



○...국민 기간 탈출 한마당에서 4연해 김영삼은 문인의 탈을 쓰고 춤을 춘다.

그가 요즘 키우는 제자 ‘공진할’, 그는 민간자율화의 탈을 쓰고 국민 기간 탈출 한마당에서 스승의 뒤를 이어 우송하기 위해 열심히 국민 기간 실패 개혁 춤을 태우고 있다.

공진할(한국공원에출진총합의 회)의 춤 실력은 정말 스승인 그의 뒤를 이어 우송하기 위해 열심히 국민 기간 실패 개혁 춤을 태우고 있다. 그는 ‘올해 국민기간탈출한마당에서 공진할을 따라올 정도로 기민적인 춤은 아마 없을 것이다’고 그의 우송을 예상했다.

(송)

스승과 제자

비둘기철판

이 문 별

□ 알립니다

- 학생회관 4층에 있는 불바에서는 14일(화)에 변함없이 불전을 드립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통일 중국어에서 영화고교이 있습니다. 10월 13일(월) 12:00 협니 3:00 원형옥 6:00 원형옥 10월 14일(화) 12:00 이소룡의 정무문 2:00 오소강호 4:30 원형옥

□ 축하합니다

왕 산 골

□ 알립니다

- 카톨릭 학생회에서 매주 월,수,금 지도교수 모시고 오후 시 동아리에서 목구기도를 드립니다.
- Master Piece 작곡음악회를 씁니다. 일시: 10월 13일(월) 늦은 4시 30분 장소: 소강당 계단
- KUSA 제2차 신입회원 모집

□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KUSA입니다. 2학기 들어 처음으로 새겨를 모 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이 점점 지겨우신 분은 지금 당장 학생회관 4층 424호로 올라오세요.

(KUSA)

- 국토순례반 신입회원 모집 국토의 소중함을 느껴보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왕산골이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문의: 학생회관 310호 (4426)
- 산봉 화하고 97학한 폐지환(16일), 이운희(20일)의 생일을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권신아랑 승준이랑)
- 10월 24일 환경학과 97학한 이종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종운)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4580

사학과 추계 학술고적 답사기

저항과 항쟁의 숨결, 남도

별교, 다산초당, 망월동 등 답사

93년 답사 이후 다시 항하는 남도. 남도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많은 것들이 마음을 살리게 하는 곳이다. 아귀온 것은 보살도를 가지 못한 것이었지만, 남도로 간다는 그 하나뿐인 그립다. 그러나 하루시절의 마지막 답사를 임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많은 것들을 반성도 해 보고, 답사하는 것에 대한 이념적인 심념을 약간 약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목격자인 전라남도로 향했다.

이 지역은 유종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도 잘 소개된 바 있다. 역사의 전장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민초들의 체취가 가득하여 '일반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극찬을 한 곳이다. 이 지역 유적의 특징은 유적지, 유적지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저항과 항쟁, 유배의 한이 가득하다는 것을 일컫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첫날에는 송광사, 별교, 낙안읍성을 둘러보았다. 송광사는 산보사찰 중의 하나인데 삼보(三寶) 불(佛), 법(法), 승(僧)을 뜻한다. 삼보는 불교의 핵심적인 3요소로서 이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불교의 성립은 가능하지 않다. 통도사는 불을, 해인사는 '일반대중경'이 있는 것을 바꾸어 버렸을, 우리가 찾았던 송광사는 승을 각각 상징하고 있다. 송광사가 송보사찰로 자리하게 된 것은 보조국사 지눌이 후 16국사를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는 것 이상으로 이곳이 불교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불교사에 새로운 기풍을 세운 정혜철사,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주도된 신장과 지혜를 닦는 데 매진한 송광을 세신하고 불교의 기상을 바로 세웠던 이 운동의 근본도였기 때문이다. 송광사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사찰이기도 하다. 공비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의 나무가 베쳐지고, 사찰 건물 일부가 불태워졌다. 현재의 예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복원이 되었다고 한다. 불상 앞에서 연꽃을 들고 있는 '이심전심' '열화미소'의 주인공인 제자 아난존의 상이 있다. 수 많은 말로 일목전 요즘엔 연꽃 하나를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일화는 참으로 유쾌하고 있고, 불교가 갖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체계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날 찾은 곳은 장진 도요지, 다산초당, 녹두담 등이다. 장진 도요지는 고려시대 청자 생산의 중심지였다. 93년 답사 때는 한창 발굴 중이었고, 도자가 조각만 내려있었는데 청자 박물관도 세워져 있고 잘 단장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박물관 안에서 상형문 청자 제작과정은 옛것을 그치 발굴하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재현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인의 자기수준이 세계적의 명성을 되찾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이어서 찾은 다산초당은 세계적의 조선의 대학자 다산선생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던 곳이다. 비가 함참 내려 초당 주변을 제대로 둘러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산 속에 자리잡은 초당 근처에는 동암, 서암, 천왕각이 있으며 바로 앞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 천왕각 너머를 걸어가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선생은 무슨 상념에 잠겼을까. 강아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미처 끝지 못한 대담부의 가슴을 닦았는지, 초당에 걸린 '다산 초당' 현판과 동암에 걸린 '보통산방' 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글자라 새긴 것인데, 글자에서 느껴지는 고향사랑을 알 수 없는 생생함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추사체라는 것이구나. 유배생활하던 무척

힘들고 고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곳에서의 유배생활이라면 그런데로 운치가 있지않았나 할 정도로 초당의 경치는 아름다웠다. 이곳에서 다산선생은 여러 제자를 가르쳤고, 많은 이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였다. 선생은 '홍유신서', '경세유료', '배트문 학명'의 아버지인 호치만이 늘 가지고 다녔다는 '목민심서'를 이곳에서 저술하기도 하였다. 다산초당은 단순한 유배지라는 의미를 떠나 너무나도 많은 고뇌와 번민속에서 시대의 고만을 처절히 끌어안고 살던, 어찌보면 불우한 존재인 한 선각자의 모습을 떠올리는 곳이다. 초당 뒷마당에 비를 피해 쉬고 있는 두개비에게 인사하고 떠나왔다.

91년 4월 석파이프에 목숨을 잃은 같은 학번 경대 (고 강경대 열사)의 묘지 앞에선 가슴이 아파다.

녹두담은 해남군 연동 마을에 있는 해남 윤씨의 종가를 일컫는 곳이다. 해남 윤씨는 해남 땅의 가장 큰 성씨 중 하나로 명문으로 났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시조가인 고산 윤선도와 그의 종손이며 산비 화가로 손 꼽히는 공재 윤두수가 이 집안출신이다. 녹두담의 전설을 바라보면 한 가문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유물들을 전시한 전시장에는 국보, 보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하여 예술사적 가치를 지닌 것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공경대였던 부장적인 전설이라는 것이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녹두담 안에 기록한 고목 돌은 말 해주고 있었다.

대흥사로 가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같고 같이 오묘한 기분을 자아냈다. 피안교를 건너고 해탈문을 지나면서 속세의기전 삶을 벗어나 대자유에 이르고자 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준다. 아득아득한 날에 보이는 전경들은 더욱 더 탈속의 학자에 접어들게 하고 은은하게 들려오는 목탁소리는 마음에 평온을 안겨준다. 사찰을 한참 둘러본 뒤 다시 피안교를 건너 속세(?)로 돌아왔다.

세째날에는 완도, 담교, 운주사 등을 찾았다. 완도에는 장도 정해진 유적지가 있다. 이곳은 통일신라시대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교로의 요지였다. 앞바다에 발견된 고지도에 '신라'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해상활동은 담과 일본을 뛰어넘어 더욱 활발하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해상활동 정보의 활발한 움직임의 흔적이, 멀리 바다와 섬들만 눈에 들어 있었다.

담교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라본 뒤 운주사로 향했다. 운주사에는 다른 사찰과 달리 독특한 유적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홉이 눈에 띄었다. 누워있는 불상이 있어서만 세상이 다가온다는 민간의 전설이 있는데, 이것은 미륵신앙과도 흡사하다. 그 커다란 아홉이 벌떡 일어선다는 것은 황당하지만, 그러한 믿음과 이야기들은 갑갑한 우리네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으리라. 민초들의 꿈과 열망을 담은 수많은 이야기들도 우리의 소중한 유산일 것이다.

마지막 날 아침이 어김없이 밝아왔다. 소쇄원과 망월동 묘역을 거처 모든 일정이 끝났다. 소쇄원을 가깝게 둘러보고 망월동 묘역을 찾았다. 해마다 5월이면 그 의미를 더욱 달리고, 순례와 발걸음 계속하는 현대사의 아픈 기억, 하지만 5월 광주는 이제 그 함몰이 인성적 망월동 묘

역은 성역화되어 화려하게 꾸며졌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미완이다. 80년 광주의 외침은 아직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허하기만하다. 5.18묘역 산간 안에 놓은 탑은 두 손이 하나의 알을 들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아직도 미완인 그 무엇을 말하는 듯하다. 신관에는 5.18당시 쓰러져있던 아들이 붙어있고, 구관에는 우리에게 낯익은 이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참열이 형, 한열이 형 그리고 경대, 수많은 민주열사들은 구관에 그대로 붙어있다. 91년 4월 석파이프에 목숨을 잃은 같은 외학번이었던 경대의 앞에서 가장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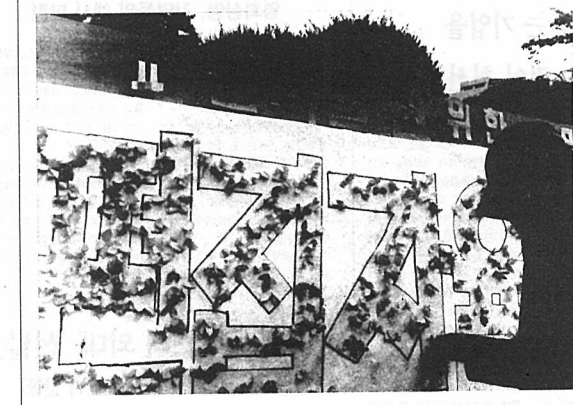
이 아파다.

망월동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남도답사'를 마쳤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생생했던 남도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다시 찾은 날을 기다리면서 서울로 향했다.

대박지날 나의 답사는 끝났다. 큰 마음을 먹고 떠난 마지막 답사,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내. 그러나 이번 답사에서 얻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지난 대학시절 내 나, 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산조들의 숨결이 가까이 할 기회를 가졌던 시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 후배들이 답사를 할 때마다 기도 하든, 한가지 부탁하고 싶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답사를 즐겨보길.

김지환

(인문/사학 91)



사건 4필

「외대」 교지는 지난 여름방학전부터 편집지율권 사수부정에 들어갔다. 시적할 때까지만 해도 꽃들은 많지 않았다. 그만큼 기나긴 투쟁이었고 힘든 투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다. 그러나 편집지율권 사수부정을 벌인 교지는 이 승리를 발판으로 좀 더 학생대중들과 함께하러 노력을 해야겠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 지난 6월(월)부터 9월(목)까지 양 배틀터에서 있었던 교지 전면 투쟁에서 -

임승희 기자

편지글 - 사랑하는 외대후배에게

라틴아메리카의 정열과 낭만은 어떠한가?

라틴 아메리카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 내 나이 이미 60대에 들어섰으면서도 그곳에 대한 그 리움과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보나 나는 한국에서의 오랜동안 직장생활을 끝내고 중부 아메리카의 온두라스의 엘살바도르의 한국 의무재조업체가 진출한 곳에서 아주 짧은 기간동안 경영자로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나의 이 조그만 체험을 통해 본 부

본들을 나의 사랑하는 외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어 마땅히 직고자 한다.

현재 중남미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다. 대체적으로 의무재조업체인 이들은 중미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엘살바도르에서 요즘은 니카라과와 멕시코로 진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서민이든 농사지식 못하든 의식소통을 할 수 없기때문에 외대 출신의 많은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지 않다. 단지 이곳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진출을 하는 것이고, 이 곳의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심지어 56년을 이곳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서민이해를 한마디도 구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니 그 기업에 종사하는 간부들이나 기술직도들은 문화나 정치적인 배경, 언어를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교육받았다고 한지에서 생활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터득한 수준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

지기도 한다. 그 가운데 업체들이 정통 서민이여 전공출신의 대를 사원들을 채용하여 현지와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각 대학의 서민이여와 출신 사원들보다 그곳의 국민들과 친절한 한국기업체의 갈등과 불신의 벽이 두터워지고 임금의 격이 커져 있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크리브 해안의 도미니카 공화국, 중미의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들이 거의 같은 문화권의 나라라기보다는 현지에서 느낀 바로는 매우 이질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엘살바도르같은 나라는 반석이 좁고 인구가 조밀한 탓인지 중미에서는 매우 부지런하고 중미국민들 중에서는 비교적 수 없는 민간의 노동의 질이 높아 제품의 질 또한 다르다. 그리고 시내 거리도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깨끗하다. 또한 자신들도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중미의 이스라엘', '중미의 일본'이라고 자신들이 여기하고 자랑스러워 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열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는 국민의 의식이 우리가 보는 바로는 매우 열악하고 있고 외국으로 보기도 경제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러자 외대의 중미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각국의 문화적인 특성, 정치적인 배경 등의 학문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제도, 특히, 우리와 산업부분에서 건립한 관계를 계속 가져오고 있었으며 우리 산업이 진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을 산업체들이 진출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자료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나 각 업체에서는 서민이여에 능동하고 임무를 수행할 능력 있는 인력부족으로 서민이여와 출신이 절실한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일부 진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한국에 본사가 없는 현지기업들이 대부분이므로 한국의 외대에 추천의뢰를 하지 못하고 어쩔때 현지에서 조달 하려고 하고 있다. 꼭 서민이여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영어와 출신의 제2외국어로 서민이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곳 업체들이 반겨줄 수 있다. 실제로 서민이여인 구사하는 것보다 미국시장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주임무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유리한, 그래서 오늘과 같이 좁은 국토에서 취업난이 허락하기보다는 비록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정열과 낭만이 있는 이곳 라틴아메리카에서 젊음을 보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정영규
(서민이여와 동문)

혼자보기
아 깎 다

혼자만 감상하기까은
외대인의 작품을 찾습니다

문학작품, 서예, 미술, 광고 등
모든 종류의 작품을 확보에 실어보십시오

외대학보 학술상 문학상 공모



이종섭의 '소'

이종섭의 '소'에는 우리 민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싸우는소」에는 계속되는 남북분단의 비극이 「분노하는소」에는 한국전쟁을 통해 황폐화된 민중의 분노가 「흰소」에는 백의민족으로 대표되는 우리민족의 첫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글에는 무엇을 담았습니까? 외대학보 학술상·문학상에 담아보십시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